

12/31/17

설교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참 동역자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디모데후서 4:9-18

- (딤후 4:9)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절관주** 딤후 1:4
- (딤후 4: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절관주** 딤후전 6:17, 요일 2:15
- (딤후 4: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 (딤후 4:12)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절관주** 행 20:4
- (딤후 4:13)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겹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 (딤후 4:14)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 (딤후 4:15)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 (딤후 4:16)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절관주** 행 7:60
- (딤후 4: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절관주** 삼상 17:37, 마 10:19
- (딤후 4: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14 시간이 지나면 2017 년은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흘러간 시간이 되고 2018 년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면 우리들이 어김없이 하는 것이 있는데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는 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난 한 해를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지난 한 해는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회고하며 차곡차곡 쌓다보면 우리네 인생은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한 해만을 되돌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모든 세월을 되돌아 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번에는 자신이 풀려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유서나 다름없는 편지입니다.

편지의 일부인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일생동안 하나님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 특별히 의미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회고하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데마를 꺼내어 언급합니다.

(딤후 4: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을 버리고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데마는 바울의 서신에 모두 세 번 등장합니다.

맨 처음은 빌레몬서 1:24 인데 여기서는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됩니다.

(몬 1:24)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다음은 골로새서 4:14 로 아무런 수식어 없이 단지 이름만 등장합니다.

(골 4:14)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는 본문에서 떠난 자, 배신자로 언급됩니다.

데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으나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자 변심을 했습니다.

바울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자신에게까지 불뚱이 튕까봐 바울을 버리고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마가 자신을 떠난 이유가 세상을 사랑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로 추측해 보건대 데마는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적과 그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과 존경을 받는지를 목격하면서 자신도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자신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같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따르는 길임을 깨닫고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로 작정한 것을 접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딤후 4:11)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본래 요한이라는 유대 이름을 가졌던 부유한 집안의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고로 신앙적으로 외삼촌 바나바와 어머니 마리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가의 외삼촌인 바나바는 평신도로서 자신의 땅을 팔은 돈 모두를 교회에 내 놓을 정도로 믿음의 깊은 사람이었으며 성품도 온유하여 성도들 사이에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제공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사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치명적인 실수를 몇 번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잡히실 때였습니다.

그때 마가는 베 흠이불을 걸치고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에 갔다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자 놀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줄행랑을 쳤습니다.

(막 14:50)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막 14:51)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 흠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막 14:52) 베 흠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기록에 나온 '한 청년'이 마가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울의 1 차 전도여행 때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그들이 힘을 합쳐 열심히 선교한 결과 바보에서는 그 지역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여세를 몰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까지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더 이상 선교 여행을 계속하기를 거부하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와 버렸습니다.

(행 13:13)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가 포기한 이유에 대해 성경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부유한 집안에서 고생을 모르고 자란 마가가 선교의 힘든 상황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마가의 이런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바울은 마가를 더 이상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기 원치 않았고 그 문제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의견 충돌이 벌어져 2 차 선교 여행 때는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각기 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한 팀이 되어 다시 구부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 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후 마가는 오랜 연단과 신앙의 연륜으로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되었고 바울도 그런 마가를 지켜보면서 다시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더하여 마가는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되었고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 인정받아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딤후 4:14)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딤후 4:15)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에도 알렉산더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딤펴전 1:18)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딤펴전 1: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딤펴전 1:20) 그 가운데 후메나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악한 행동으로 해를 끼치고 떠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알렉산더를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주님께 저가 행한대로 보응해 주기를 구했으며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를 언급합니다.

(딤후 4: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누가만이 그의 곁에 끝까지 남아서 그와 함께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는 바울의 신변이 매우 위험하여 옆에 같이 있는 사람도 어떤 해를 받게 될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고 지켜 준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14 절에서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소개합니다.

(골 4:14)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누가를 '모든 교회에서 칭찬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후 8:18)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또 빌레몬서에서는 데마와 함께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몬 1:24)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누가의 평소의 삶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누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한 명씩 회고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딤후 4:16)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고 있노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눅 23:32)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눅 23:33)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눅 23: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딤후 4: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이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바울을 찾아와 격려해 주시고 힘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자신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까지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 18: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행 18: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행 23:11)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과 동역자가 되어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신실한 바울에게 위기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신앙의 진수를 고백을 합니다.

(딤후 4: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절대 절명의 순간에도 바울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는 도리어 자신이 죽더라도 최후에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 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품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날,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면면을 회고하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저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감동 그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세상 삶이 힘들고 고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겨 놓으신 쉬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눈치 보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동역자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라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최후에 승리자가 되어 천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